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본문: 창세기 27:30-4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ZkAY7IbNSU8?si=X2EDiu6QG6TLVLR00>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오늘 본문에는 축복을 빼앗기고 방이 떠나가라 통곡하는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의 눈물은 겉보기엔 무척 간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눈물을 매섭게 평가합니다. 에서의 눈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을 가볍게 여긴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사라진 세상의 축복이 아까워 서글프게 울었을 뿐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있습니다. 에서는 끊임없이 동생 야곱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짐 콜린스의 '거울과 창문의 법칙'처럼, 일이 잘못되었을 때 '창문'을 열고 밖을 탓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을 탓하고 핑계 대는 눈물은 결국 분노를 낳고 사탄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반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즉각 엎드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핑계 대지 않고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무게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이제 원망의 창문을 닫으십시오. **환경을 탓하던 후회의 눈물을 거두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찢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관찰]

1. 축복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창 27:34)
2. 에서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창 27:36)

[삶의 적용]

1. 나는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창문'을 열고 남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며 내 연약함을 살피니까?
2. 상실감에 빠져 흘리던 '후회의 눈물'을 멈추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내야 할 '참된 회개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헛된 핑계와 원망의 창문을 닫고 십자가 거울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